

##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역사의식과 초현실세계의 지향\*

안 창 수\*\*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작가의식 |
| II. 다양한 공간의 설정과 역사의식           | V. 맺음말   |
| III. 자기(知己)의 발견과 초현실세계<br>의 지향 |          |

### 국문초록

〈취유부벽정기〉는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비틀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홍생이 역사를 통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해 보려 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인간들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초현실의 세계에서 가서라도 삶에 대한 이치를 듣고 싶어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조의 정변을 겪으며 김시습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작품화 한 것이기도 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주제어 : 역사의식, 삶의 이치, 초현실세계, 삶에 대한 문제의식

## I. 머리말

<취유부벽정기>는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는 두 인물의 만남, 즉 현실세계의 인물인 홍생(洪生)이 신선들이 사는 초현실세계의 인물인 기씨(箕氏)녀를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취유부벽정기>는 홍생을 작품의 중심축으로 보고 조선이 건국하며 신정권에서 소외된 개성(開城) 사람들이 갖고 있던 회고와 애상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했고,<sup>1)</sup> 도가(道家)적 초월주의에 주목하여 기자조선(箕子朝鮮)의 후예로서 선녀가 된 기씨녀를 등장시켜 반존화적(反尊華的) 민족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했다.<sup>2)</sup>

동일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것은 <취유부벽정기>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공간의 이중성 내지는 다중성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부벽정이나 평양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sup>3)</sup> 『전등신화(剪燈

1)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13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1, 40~41쪽.

2)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현상과 인식』9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9, 124~130쪽.

3) 윤호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중국어문학』18권,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191~213쪽.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191~221쪽.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쪽.

김창현, 『금오신화』,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낭만성, 『인문과학연

新話』의 <감호야범기(鑑湖夜泛記)>와 <등목취유취경원기(滕穆醉遊聚景園記)>의 공간과 비교하여 <취유부벽정기>의 공간 구조의 특징을 밝히려는 노력도 있었다.<sup>4)</sup>

그러나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나는 공간의 이중성은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다섯 작품에서 <취유부벽정기>가 차지하는 구성상의 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취유부벽정기>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그리고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앞의 두 작품은 명혼(冥婚)소설이라 불리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고, 뒤의 두 작품은 몽유(夢遊)소설이라 불리며 이계(異界)탐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죽은 사람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므로 초현실의 세계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 사랑이 전개되는 공간은 현실세계이다. 이에 비해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는 남염부주(南炎浮州)와 용궁(龍宮)이라는 초현실의 세계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다. 그러나 <취유부벽정기>는 현실세계에 사는 홍생이 평양의 부벽정에서 초현실세계의 인물인 기씨녀를 만나고 난 뒤 기씨녀가 있는 초현실세계로의 진입을 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가 모두 작품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초현실세계로의 진입을 꾀하는 홍생의 행위에 이어 초현실세계를 다루는 두 작품으로 『금오신화』가 짜여져 있다. 이것은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나는 공간의 이중성이 『금오신화』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구성상의 위상과 결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오신화』에서 <취유부벽정기>의 위상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의 의미를 이어 받아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의 의미와 연결시켜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논총』38호,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15~36쪽.

4)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14권, 한국고소설학회, 2002, 5~30쪽.

현실세계에서 남녀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의미를 이어받고 있고, 초현실세계로의 진입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금오신화』가 단순히 여러 편의 작품을 모아 놓은 작품집의 이름이 아니라 다섯 작품의 의미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형성하는 한 편의 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취유부벽정기>의 다양한 공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과 어떤 의미적 관계를 맺으며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 Ⅱ. 다양한 공간의 설정과 역사의식

① 평양은 옛 조선의 서울이었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기자(箕子)를 찾아 갔다. 기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법을 알려주니 무왕이 기자를 이 땅에 왕으로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平壤故朝鮮國也 周武王克商 訪箕子 陣洪範九疇之法 武王封于此地 而不臣也).

② 평양의 명승지로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추남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옛 유적이며, 영명사와 부벽정도 옛 유적의 하나이다. 영명사는 곧 동명왕의 구제궁(九梯宮)이며 평양성 동북 20리 되는 곳에 있다. 긴 강을 굽어보고 멀리 평평한 들판을 바라보며 아득하기 끝이 없으니 진실로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其勝地則 錦繡山 鳳凰臺 綾羅島 麒麟窟 朝天石 楸南墟 皆古跡 而永明寺 浮碧亭 其一也 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也 在郭外東北二十里 俯瞰長江 遠矚平原 一望無際 眞勝景也).

③ 화려한 유람선과 상선(商船)들이 저녁 때 대동문(大同門) 밖 버들 숲이 있는 물가에 정박하게 되면 사람들은 강물을 따라 올라와서 이곳을 마음대로 구경하고 실컷 즐기고는 돌아간다(畫舸商船 晚泊于大同門外之柳磯 留則 必泝流而上 縱觀于此 極歡而旋).<sup>5)</sup>

<취유부벽정기>의 첫 부분이다. ①, ②, ③은 모두 평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①은 기자조선 시대의 평양에 대해서, ②는 다양한 유적을 통해 드러나듯이 고구려 시대의 평양에 대해서, ③은 화려한 유람선과 상선들이 드나드는 현재의 평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기자조선, 고구려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간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과 ②를 과거라고 하고, ③을 현재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홍생은 바로 현재의 공간에 살고 있는 인물로서 어떤 계기로 과거의 공간과 만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의 딸로서 신선이 되어 초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기씨녀와 만나게 된다. 과거의 공간이든 현재의 공간이든 ①, ②, ③을 모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나 현실세계라고 한다면 기씨녀의 등장으로 작품에는 이제 현실세계와 초현실의 세계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까지 한 공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공간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양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작품이 무엇을 드러내려 했던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재의 공간에 살고 있는 홍생이 어떤 계기로 과거의 공간과 만나게 되었고, 또 초현실의 공간과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데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5) 김시습, <취유부벽정기>, 『매월당외집』 권 1(『매월당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1973).

본고에서 <취유부벽정기>는 위의 문헌의 자료를 대본으로 하며, 앞으로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홍생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홍생은 개성 사람으로 피륙과 면사를 사고파는 상인(商人)이었다. 그런데 그는 풍도(風度)가 있고 글을 잘 했다(善屬文)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홍생이 상인이었다는 것과 글을 잘 했다는 것이다. 홍생이 글을 잘 했다는 것은 그가 부벽정에 올라가서 지은 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기씨녀와 만나고 나서도 홍생은 상인이 아니라 줄곧 문사로서 행세하고 있다. 기씨녀도 홍생을 선비(俗士) 또는 문사(文士)라고 부르며 글을 하는 선비로 대접을 하고 있다(子亦可與言詩者也). 그런데 글을 잘 하는 것은 선비의 조건이지 상인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인이었음에도 글을 잘 했다고 하거나 문사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은 홍생이 무언가 조화롭지 않은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가 되지 못하고 상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데에서 홍생의 삶이 자신의 뜻과 달리 비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의 삶이 비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작품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생은 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녹록하지 않은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有風度 又善屬文)고 소개되어 있고, 평양의 유명한 기생들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홍생이 범상치 않은 기상과 재주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홍생의 삶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나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비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홍생이 자신의 삶을 비틀어지게 만들었던 시대나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홍생의 이러한 모습은 조선이 건국하며 신정권에서 소외된 개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sup>6)</sup> 구체화

6) 임형택, 앞의 글, 41쪽.

시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가 시대나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시대나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홍생은 <이생규장전>에서 이생(李生)의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폭력에 유린되며 시대의 패악상에 대해 분노하고 이것을 용인하는 하늘에 대해서조차 절망했던 이생이 시대나 사회에 대해 가졌던 심각한 문제의식을 삶의 조건이 서로 어긋나서 비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홍생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유부벽정기>는 <이생규장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그 해답을 추구하려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홍생이 시대나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홍생의 행위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홍생은 한가위를 맞아 배에 포백(布帛)을 잔뜩 싣고 평양으로 간다. 그러자 평양의 이름난 기생들과 친구들이 몰려 나와 잔치를 베풀며 홍생을 극진하게 환대한다. 홍생이 돈이 많은 부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이 취하자 홍생은 일행과 떨어져 당(唐)나라의 시인인 장계(張繼)의 시(詩) <풍교야박(楓橋夜泊)>을 읊으며 자기만의 감상에 젖어 혼자 작은 배를 타고 부벽정에 다다른다.

홍생이 평양에서 친구와 기생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오랜만의 평양 나들이이고, 친구들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환영하는(城中有故友李生 設宴以慰)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생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117쪽.

홍생이 읊조리며 공감했던 장계의 시 <풍교야박>을 살펴보면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동했던 그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달이 지고 까마귀 울고 가는 밤 서리가 온 하늘을 덮었구나  
月落烏啼霜滿天  
강가 고깃배의 등불을 마주 보며 수심 속에서 잠드는데  
江楓漁火對愁眠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들리는  
姑蘇城外寒山寺  
한 밤중의 종소리가 나그네 뱃전까지 들려오네  
夜半鍾聲到客船

기구(起句)에서 시인은 자신이 까마귀가 울고 서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으며 달마저 없는 캄캄한 밤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을 어둡고 스산하며 서리가 내려 चु기까지 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구는 승구(承句)의 시상과 연결되며 시인이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세상과 사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수심에 젖어 고뇌에 잠겨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한다.

승구(承句)는 시인이 수심에 잠겨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인의 수심은 기구에서 보여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삶의 조건에서 파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인은 강가에 있는 고깃배의 등불을 멀리서 마주 보며 잠을 청하고 있다. 시인이 사람들과 떨어진 자기만의 공간에서 수심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켜 주며, 시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캄캄한 밤 적막한 공간을 뚫고 들려오는 한산사의 종소리는 시인의 고독과 고뇌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풍교야박>의 시는 홍생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비틀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던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홍생을 부벽정으로 이끌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삶을 비틀어 놓는 시대나 사회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파생된 답답함과 울적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적 욕구였다고 할 수 있다.

배를 타고 부벽정에 다다른 홍생은 부벽정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바라본다. 이 때 홍생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물결만 무심하게 철썩이는 옛 성곽이었다. 홍생은 외로운 성곽을 바라보며 고국이 망하니 도읍터에 보리만 우거졌구나(麥秀殷墟之歎)라고 탄식하며 6수의 시를 짓는다. 달빛은 바다처럼 넓게 비치고 물결은 비단처럼 고운데 기러기는 모래밭에서 울고 학은 이슬 젖은 소나무에서 푸드덕거리는(月色如海 波光如練 雁叫汀沙 鶴警松露)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러나 홍생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망해버린 나라의 무너진 옛 성터였다.

대동강 물은 푸르고도 푸른데	涇江之水碧於藍
천 년의 흥망사를 한탄한들 어이하리	千古興亡恨不堪
우물에는 물이 말라 담장이만 덮여있고	金井水枯垂薛荔
돌담에는 이끼 끼고 능수버들 늘어졌네	石壇苔蝕擁檉楠
타향에선 풍월시를 천 수나 읊었는데	異鄉風月詩千首
고국의 정든 회포에는 술이 반쯤 취하는구나	故國情懷酒半酣
달빛이 난간에 비취 잠조차 오지 않는데	月白倚軒眠不得
깊은 밤 계수나무 가지 길게 드리워졌네	夜深香桂落毵毵

한가위에 달빛은 곱고도 고운데	中秋月色正嬋娟
외로운 옛 성터는 볼수록 슬프구나	一望孤城一悵然
기자묘 뜰에는 교목이 늙어 있고	箕子廟庭喬木老
단군사 벽에는 담쟁이가 얽혀있네	檀君祠壁女蘿緣
적막하구나 영웅들은 어디에 있어	英雄寂寞今何在
초목만 듬성한 것이 몇 해나 되었는가	草樹依稀問幾年

다만 옛 날의 둥근 달만 뚜렷이 남아서	唯有昔時端正月
맑은 광채 흘러나와 옷깃을 비추네	清光流彩照衣邊

홍생이 부벽정에서 읊은 6수의 시 가운데 셋째와 넷째의 시이다. 셋째 시에서 홍생은 대동강 물을 보고 천 년의 흥망사를 회고한다. 그리고 담쟁이와 버드나무에 덮여 황폐해진 우물과 담장을 보며 잠조차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심에 잠긴다.

홍생이 상심에 잠긴 구체적인 이유는 이어지는 넷째 시에서 밝혀진다. 홍생은 황폐해져서 찾는 사람마저 없는 옛 성터가 달빛 속에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니 슬프다고 한 다음, 기자(箕子)를 모신 기자묘(箕子廟)와 단군(檀君)을 모신 단군사(檀君祠)가 초목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지키고 돌보던 영웅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홍생의 관점이 황폐해진 기자묘와 단군사가 아니라 이들을 지키고 돌보던 영웅들이 사라진 데에 대한 안타까움에 모아져 있다는 것이다. 영웅들이 돌보고 있었다면 기자묘와 단군사가 그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홍생이 달빛 속에 외로이 서 있는 옛 성터를 바라보고 슬퍼했던 것은 영웅들이 가고 없어 그들이 지키고 돌보아야 할 삶의 터전과 그 안에 귀하게 모셔져 있던 역사적 유적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어 황폐하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자묘와 단군사를 지키고 돌보던 영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문맥으로 보아서 영웅들은 기자와 단군의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며 돌보고 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들이 없기 때문에 사당이 초목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다고 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와 단군의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렸다면 고조선 이후의 국가로서 고조선을 자기들의 선조로 모시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던 나라는 고구려이다. 홍생은 옛 성터에 남아 있는 기자묘와

단군사를 거론함으로써 고구려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웅들은 기자와 단군의 사당을 지어놓고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고구려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결국 홍생은 넷째 시에서 고구려가 단군 조선에서 기자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통성을 물려받았음에도 영웅들이 사라지고 없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시킨 데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은 다섯째와 여섯째의 시에서도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東明王)이 하늘에 조회하러 간 뒤 돌아오지 않아서 그가 타던 금수레와 기린말의 자취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聖帝朝天今不返 .... 金輿麟馬無行迹) 있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부벽정으로 오르는 청운교와 백운교를 바라보며 고구려를 침공하다 오히려 참패해서 돌아간 수(隋)나라 병사와 수양제(隋煬帝)의 넋이 여울물과 매미가 되어 울고 있다고 하며 고구려의 찬란했던 영광과 역사를 반추하는 한편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것에 대해 비통해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틀어 놓은 시대와 사회에 대해 자기만의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풀기 위해 부벽정에 올라왔던 홍생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고구려의 유적을 보고 깊이 상심하여 비통해 하고 있었다.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사람들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삶이 비틀어지고 파괴되어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홍생은 고구려의

8) 영웅이 단군이나 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의 시는 단군과 기자가 가고 없는 것을 탄식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시는 옛 성터의 황폐함을 탄식하는 시이다. 기자묘와 단군사도 셋째 시의 우물과 돌담처럼 성터의 황폐함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웅도 성터의 황폐함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웅을 기자와 단군으로 본다면 기자와 단군이 없어서 기자묘와 단군 사당이 황폐해졌다고 한탄하는 시가 되므로 의미적으로 모순이 된다. 또한 고구려의 역사를 반추하는 다섯째와 여섯째 시와의 의미적 관계로 미루어보아도 영웅들은 고구려의 영웅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적을 보며 인간들의 삶이 비틀어지고 파괴되었던 역사가 자기의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홍생은 시를 읊으며 한 구를 읊을 때마다 흐느껴 비통해 하며(每吟一句 歔歔數聲) 깊은 감회에 젖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고구려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동조했기 때문이고,<sup>9)</sup> 황폐한 고구려의 유적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이 더욱 증폭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홍생이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비탄에 잠겨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난다. 여인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의 딸로서 나라가 망하는 재난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신인(神人)의 도움으로 지금은 신선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씨녀(箕氏女)였다. 그녀는 홍생과 만나게 된 그 날 불현듯 고국이 생각나서 조상들의 무덤에 참배하고 부벽정도 구경하며 회포를 풀어볼까 해서 현실세계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부벽정에서 시를 읊으며 비통해 하던 홍생을 만난 기씨녀는 홍생의 시를 다시 듣기를 원하고(子之所吟者 何語也 爲我陳之), 홍생과 더불어 시를 이야기하기를 바란다(子亦可與言詩者也). 그리고 홍생의 시에 화답해서 역시 6수의 시를 짓는다.

가을 매미는 풀뿌리에서 울어대는데	草根咽咽泣寒蟬
높은 정자에 오르니 생각도 아득하다	一上高亭思渺茫
비 그치고 구름 개니 옛 일이 슬프고	斷雨殘雲傷往事
꽃 저서 물에 흐르니 세월도 빠르구나	落花流水感時光
가을 기운 드높으니 물결 소리 웅장한데	波添秋氣潮聲壯
물에 잠긴 누각에는 달빛도 처량하다	樓蘼江心月色涼
옛 날 이 땅은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此是昔年文物地
황폐한 성 덩성한 나무에 간장이 끊어진다	荒城疎樹惱人腸

금수산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錦繡山前錦繡堆
-----------------	---------

9)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삼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43쪽.

강가의 단풍들은 옛 성에 비취었는데	江楓掩映古城隈
어느 곳에선가 다듬잇돌소리 들려오고	丁東何處秋砧苦
노 젓는 한 소리에 고깃배 돌아 온다	欸乃一聲漁艇回
바위에 기대 고목에는 담쟁이 얽혀 있고	老樹倚巖緣薜荔
풀 속에 쓰러진 비석에는 이끼가 끼었구나	斷碑橫草惹莓苔
말 없이 난간에 기대 지난 일을 생각하니	凭欄無語傷前事
달빛과 파도소리 모두가 슬픔이네	月色波聲摠是哀

기씨녀가 화답한 셋째와 넷째의 시이다. 모두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대비시키며 시상을 전개해가고 있다. 셋째 시에서 기씨녀는 매미의 울음소리, 정자, 비가 그친 뒤의 구름, 물에 떠서 흐르는 꽃잎 등 부벽정 주변의 자연 풍광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다가 문득 옛 날에는 이곳이 문물이 번성했던 곳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그리고 황폐해진 성에 몇 그루 나무만 덩성하게 서있는 것을 보고 간장이 끊어지는 비통함에 사로잡히고 있다.

넷째 시에서도 기씨녀는 무심히 흐르는 강물과 단풍을 벗 삼아 서있는 옛 성과 다듬이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등 세상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다가 문득 깨어진 채 풀 속에 버려져 있는 비석을 보고는 영화로웠던 옛날 일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있다.

기씨녀는 부벽정의 경치와 황폐하게 버려진 성을 보고 감회에 젖어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다. 기씨녀의 상실감은 황폐한 성을 보고 망해 버린 고국 기자조선의 영광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황폐한 성을 보고 깊은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점에서 기씨녀는 홍생과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씨녀가 홍생의 시를 다시 듣고 싶어 하고, 더불어 시를 이야기하기를 바랐던 것도 홍생이 자기와 동일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벽정에서 함께 만나서 시를 짓고 있었음에도

홍생은 고구려의 역사를, 기씨녀는 기자조선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보고 시를 지었음에도 두 사람이 보여주는 관심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벽정에는 고구려와 기자조선이라는 두 공간이 겹쳐서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기자조선은 모두 고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을 도읍으로 삼고 있었고, 고구려 사람들은 기자묘와 단군의 사당을 모시고 있었다. 고구려와 기자조선이 단군 조선에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와 기자조선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시킨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갈라져 있고 관심의 대상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기자조선은 함께 다루어질 수 있고, 홍생과 기씨녀도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씨녀와 만나며 홍생은 인간들의 삶이 비틀어지고 파괴되었던 역사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기자조선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홍생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자신의 비틀어진 삶 때문에 생긴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풀기 위해 부벽정에 올랐었는데 거기에서 홍생은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홍생의 고뇌를 심화시키고 상심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홍생은 삶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Ⅲ. 자기(知己)의 발견과 초현실세계의 지향

홍생과 기씨녀는 모두 자신들의 삶이 뒤틀리고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 때문에 인간들의 삶이 파괴되어진 역사를 보며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홍생과 기씨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생은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통해 하고 있었다. 홍생은 시를 다 쓰고 나서도 자기의 시를 읊으며 일어나 춤을 추고 흐느껴 울며 비탄에 잠겨 있었다(生吟罷 撫掌起舞踟躕 每吟一句 歔歔數聲). 시를 읊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는 것은 홍생의 비통함이 깊은 구렁에 잠긴 용에게 전달될(中情感慨 足以舞幽壑之潛龍) 정도로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홍생은 깊은 상실감과 비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기씨녀 역시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홍생과 동일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기씨녀는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이 부질없는 행위임을 깨닫고 스스로 허무와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기씨녀가 지은 다섯째 시를 보자.

뜸성한 별들은 하늘을 수놓았고	幾介疎星點玉京
은하수 맑은 밤에 달빛도 밝구나	銀河清淺月分明
빛났던 일들이 다 허사인 줄 알았으니	方知好事皆虛事
저승에서 이승의 삶 기약하기 어렵네	難卜他生遇此生
좋은 술 한 동이에 흐트러지게 취해서	醕醕一樽宜取醉
난세의 삼 척 검을 마음에 두지 마세	風塵三尺莫嬰情
만고의 영웅들도 이미 흙이 되어서	英雄萬古成塵土
세상에는 죽은 후의 이름만 남아 있네	世上空餘身後名

다섯째 시에서 기씨녀는 은하수가 맑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과거에 빛났던 일들이 다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삼 척의 검을 휘두르며 난세를 평정했던 영웅들도 지금은 흙이 되어 사라지고 없으니 그들을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동이의 술을 마시며 허무와 상실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sup>10)</sup>

기씨녀는 이어지는 여섯째 시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빠져 나와 현실

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홍생을 향해 부벽정에서 만나게 된 기쁨을 이야기 한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초현실의 세계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며 헤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를 쓰고 나서도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어 비통함에 젖어 흐느끼고 있는 홍생과 달리 기씨녀는 눈물을 털어내고 현재와 미래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과거의 역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기씨녀가 허무와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씨녀가 역사적 사실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홍생과 달리 허무와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은 기씨녀의 시를 보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말을 걸어서 만류하려 했다(生得詩且喜 猶恐其返也 欲以談話留之).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홍생이 기씨녀의 시에서 허무와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기씨녀를 통해 자신도 비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씨녀는 허무와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홍생은 기씨녀가 누구이기에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홍생이 기씨녀의 시를 읽은 뒤 기쁜 마음이 들어서 성씨와 가문을 물어보며 그녀가 돌아갈까 걱정이 되어 말을 걸어 만류했던 것은 이러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홍생의 만류로 이야기를 시작한 기씨녀는 자기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공주이며 나라가 망하는 전란의 소용돌이에서 신인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지금은 신선들이 사는 초현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

10) 이런 점에서 기씨녀의 시가 홍생의 시에 비해 훨씬 더 처절하고 감정의 격랑도 심하다는 평가(전성운, 앞의 글, 212쪽)는 적절하지 않다.

기를 해 준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초현실의 세계가 어떤 공간인가 하는 것을 홍생에게 알려 준다.

향이는 나를 절개 곧고 글 잘 하는 여인이라 칭찬하고 ‘비록 인간세상의 명승지가 복지라고는 하지만 모두 풍진의 소용돌이일 뿐이니 하늘 나라에서 흰 난새를 타고 계수나무 아래에서 맑은 향기를 맡고 푸른 하늘에서 달빛을 띠고 옥경에서 즐겁게 놀며 은하수에서 떡감고 노는 것만 하겠느냐’ 하고, 나를 향안을 받드는 시녀를 삼아 자기 곁에 있게 해주었는데 그 즐거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오(嫦娥以我貞靜能文 誘我曰 下土仙境 雖云福地 皆是風塵 豈如履青冥驂白鸞 把清香於丹桂 服寒光於碧落 遨遊玉京 遊泳銀河之勝也 卽命爲香案侍兒 周旋左右 其樂不可勝言)

기씨녀는 신선들이 사는 초현실의 세계가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초현실세계의 존재로 살게 되면서 인간들의 세상과 초현실의 세계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서의 삶은 초현실세계의 것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초현실세계의 삶을 인간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짐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세상에서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감을 확보하게 된다. 전란의 소용돌이를 겪었음에도 초현실세계의 존재로 살아가며 기씨녀는 인간 세상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허무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씨녀는 초현실세계의 삶이 인간세상의 삶보다 가치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을 뒤덮고 있는 풍진(風塵)의 소용돌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풍진이 없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이상적인 사회질서가 초현실의 세계에서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 기자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풍진의 소용돌이가 인간들의 삶을 계속해서 파괴해왔던 것을 보고 절망했던 홍생

은 기씨녀의 시를 읽고 이야기를 들으며 초현실세계의 삶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들은 후 홍생은 기씨녀에게 그녀의 시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稍解雲謠), 사미(四美)가 갖추어진 지금 <강정추야완월(江亭秋夜翫月)>이라는 제목으로 40운(韻)의 시를 지어 자기를 깨우쳐달라고(教我) 부탁한다. 부벽정의 달 밝은 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 서로가 감회를 토로하며 교류하고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의 이야기로 자기를 깨우쳐 달라고 한 것이다. 홍생은 기씨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삶이 비틀리고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초현실세계의 존재로 살면서 허무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초현실의 세계에 살면서 터득했던 삶의 이치를 시에 담아 자신을 깨우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씨녀는 <강정추야완월> 시에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신비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홍생과 만났던 만남의 기쁨을 이야기한 다음, 신선들의 세계가 영원하고 광활한 데 비해 인간들의 삶은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간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단군과 기자조선 그리고 고구려의 유적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 것으로 시를 끝내고는 상제의 명령으로 그만 가봐야 한다고 하며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시의 내용을 보면 기씨녀는 40운의 장편시를 지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홍생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지 못 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씨녀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상제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맑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척 아프다(淸話未盡 愴我中情)는 말을 남기고 있다. 맑은 이야기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신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다.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홍생과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인간들이 살아

가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떠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다.

기씨녀가 하늘로 올라간 뒤 홍생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未盡情款) 것이 안타까워서 기씨녀와의 일을 회상하며 시를 한 수 짓는다.

양대에서의 만남이 한 순간의 꿈이구나	雲雨陽臺一夢間
어느 해에 그리운 님 다시 볼 수 있을까	何年重見玉簫環
강물도 비록 무정하다고 하지만	江波縱是無情物
님 떠난 포구로 슬피 울며 내려가네	嗚咽哀鳴下別灣

기씨녀와 헤어진 뒤 홍생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듯한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홍생은 기씨녀와 헤어진 뒤 기씨녀를 잊지 못해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했다. 평양의 유명한 기생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여인에 대해 담백했던 홍생이 이제 한 여인을 그리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인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의 돌연한 변화는 독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한다.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고뇌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을 뿐 여인에 대해서는 담백했던 홍생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인을 그리워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홍생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게 한다. 삶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충만해 있을 뿐 여인에 대해서는 담백한 홍생과 여인을 그리워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홍생이 한 작품에서 공존하며 일관된 의미를 찾아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홍생의 변모가 돌연한 것은 아니었다. 홍생은 기씨녀가 지은 시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기쁜 마음이 들어 기씨녀가 돌아갈 것이 염려되어 이야기를 걸어서 만류하려 했고, 기씨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뒤에도 <강정추야완월>의 시를 칭하며 기씨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씨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생은 기씨녀와 인간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홍생이 부벽정에서 기씨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씨녀는 홍생의 시를 다시 듣기를 청하며 홍생에게 신선세계의 술과 고기를 주었다. 그러나 홍생은 현실세계의 사람이라서 기씨녀가 주는 신선세계의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수 없었다. 신선세계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은 홍생이 초현실의 세계로 편입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초현실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홍생과 기씨녀의 만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예컨대 남녀 사이의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것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취유부벽정기>는 여기에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움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관심을 점차 증대시켜놓았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사이의 사랑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 막는 세계의 횡포에 대해서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11)</sup> 그러나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을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 한정시켜 보게 되면 홍생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던 사회적 문제의식의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다.

홍생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나는 이중성과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 <취유부벽정기>의 이중성은 홍생이 기씨녀와 교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현실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는 데에서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기씨녀에 대한

11)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2쪽.

홍생의 그리움은 사랑이면서 사랑이 아니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씨녀와의 교유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사랑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애정, 즉 남녀 사이의 애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유부벽정기>는 부벽정에서 홍생이 기씨녀와 음식을 주고받는 장면을 통해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이 사랑이면서 사랑이 아닌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서 전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씨녀에 대해 홍생이 느끼고 있는 그리움의 실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홍생은 기씨녀의 시를 보고 기쁜 마음이 들어 그녀가 돌아갈까 염려되어 말을 걸어 만류하려 했었다. 그러나 전후의 문맥으로 보면 홍생이 기씨녀를 만류하려 했던 것은 기씨녀에 대한 인간적인 이끌림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시가 홍생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정추야완월>의 시를 부탁하며 기씨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던 것도 사실은 기씨녀를 통해 초현실세계의 질서며 삶의 이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시를 통해 깨우침을 받으려 했다(教我)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기씨녀가 하늘로 올라간 뒤 그녀를 잊지 못해 병을 얻기까지 했던 것도 초현실세계의 존재로 살면서 기씨녀가 터득했던 삶의 이치를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기씨녀는 하늘로 올라가며 삶의 문제에 대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도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데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이 사실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삶의 이치를 초현실세계의 삶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의 변모되어진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홍생은 기씨녀에게서 인간적인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홍생

이 자신을 보고 환호했던 평양의 유명한 기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애정을 기씨녀에게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홍생이 평양의 기생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그녀들과는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생은 기씨녀의 시를 보고 그녀가 자기와 동일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기씨녀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망하는 재난을 겪으며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홍생이 기씨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은 기씨녀의 생각과 처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깊은 유대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씨녀는 홍생이 비로소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기(知己)였던 것이고,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다. 기씨녀가 떠난 뒤 그녀를 생각하며 읊었던 홍생의 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애절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처럼 기씨녀에 대한 홍생의 그리움이 사랑이면서 사랑이 아닌 이중성을 띠게 됨으로써, 기씨녀와의 사랑이 단순히 남녀 사이의 인간적인 애정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병행해서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

기씨녀와 헤어진 뒤 홍생은 그녀를 잊지 못해 병이 들어 정신이 흐려지고 말에 두서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생은 꿈에 옥황상제가 부른다는 전갈을 받자, 목욕을 하고 자리를 깔게 한 뒤 턱을 괴고 잠깐 누워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마치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홍생이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생이 하늘로 올라 간 기씨녀를 그리워해서 병이 들어 죽기에 이르렀고, 하늘의 부름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홍생이 현실세계를 벗어나 초현실세계로의 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생이 초현실세계로의 진입을 바랐던 것은 기씨녀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씨녀에 대한 사랑이 홍생을 초현실세계로 이끌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생이 초현실세계로의 이탈을 바랐던 것이 기씨녀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홍생이 기씨녀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기씨녀에게서 사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홍생이 기씨녀를 사모하여 초현실세계로 진입하기를 바랐던 또 다른 이유는 기씨녀가 하늘로 올라가버림으로써 다 하지 못했던 가슴속에 쌓여 있는 이야기, 즉 인간들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홍생은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자신의 삶이 비틀어지고 파괴된 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부벽정에 올라 고구려와 기자조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홍생은 기씨녀를 만나 풍진의 소용돌이가 없는 초현실세계의 질서에 대해 눈 뜨게 되고, 기씨녀를 통해 풍진이 없는 세상의 삶의 이치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기씨녀가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자 홍생은 기씨녀를 따라 초현실의 세계에 가서라도 삶에 대한 이치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홍생을 초현실세계로 이끌어 갔던 것이다.

#### IV. 작가의식

<취유부벽정기>는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비틀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홍생이 역사를 통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역

사에서는 인간들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초현실의 세계에서 가서라도 삶에 대한 이치를 듣고 싶어 했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생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김시습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김시습이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좇아 <취유부벽정기>를 통해 드러내려 했던 의도를 찾아보기로 한다.

세조의 정변을 만나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명승지와 유적을 찾아보는 유랑의 생활을 한다. 세조의 정변은 세종 이래의 구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렸던 사건이었다. 김시습 개인에게는 세종 임금에 대한 절의의 훼손을 강요하는 사건이었고, 세종 임금과의 만남 이후 학업에 열중하며 가슴에 품고 있던 청운의 꿈을 꺾어버리는 사건이었다. 마음과 일이 어긋나는 사건을 거듭해서 겪으며 뜻이 황량해져서 머리를 깎고 세상을 등졌다는(心事相違 顛沛之際 英廟顯廟 相繼賓天 ..... 僕之志已荒涼矣 遂伴髡者遊山水)<sup>12)</sup> 그의 진술은 이러한 정황을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을 등진 그가 처음 찾은 곳은 관서(關西)지방이었다. 김시습은 관서지방으로 떠날 때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개한 일을 당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남아가 세상에 나서 도를 행할 만한데도 몸을 깨끗이 하여 운기를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도를 행할 수 없다면 그 몸만이라도 착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세상 밖을 떠다니며 도남과 사막의 풍모를 따르려 했다(一日忽遇 感慨之事 以謂 男兒生斯世 道可行則 潔身亂倫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可也 欲泛泛於物外 仰慕圖南思邈之風)<sup>13)</sup>

세조의 정변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12) 김시습, 유양양진정서, 『매월당집』권21.

13) 김시습, 당유관서록후지, 『매월당집』권9.

세상을 떠나 자신의 뜻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폭력으로 자신의 삶이 비틀리고 파괴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며 김시습이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서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며 삶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데에서 김시습과 홍생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있다.

김시습이 관서지방에서 처음 찾은 곳은 개성이었다. 고려가 500여 년 동안 도움으로 삼았던 곳이었다.

오백 년의 공업이 이미 거짓이 되었구나	五百年功事已訛
지는 해 꽃다운 풀에 나의 수심 어이할까	夕陽芳草奈愁何
누구네 집 헐린 섬돌에 꽃은 주인 없이 피어있고	誰家廢砌花無主
몇 군데 퇴락한 처마에는 참새가 앉아있네	幾處頽簷雀可羅
가마 길에 향기 사라져 성긴 비만 지나가고	輦路香銷疎雨過
가대에는 음악 소리 끊겨 찬 구름만 깃드네	歌臺響絕冷雲窠
저자의 아이는 고려의 한을 알지도 못하고	市兒不識前朝恨
꽃동산이 제일이라고 노래하네	唱得花園第一歌 <sup>14)</sup>

<송도(松都)>라는 제목의 시이다. 김시습은 오백 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지금을 멸망해 폐허로 변해 버린 고려의 도움지를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겨 있다. 폐허가 되어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 고려의 도움지를 보며 뒤틀리고 파괴된 삶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송도의 황량함에 수심에 잠겨 있던 김시습은 대동강을 건너 평양으로 간다. 평양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움지였다.

① 능묘는 우뚝하게 솟아 웅장하지만      峩峩陵墓壯

14) 김시습, 『매월당집』 권9.

소나무와 가래나무만 적막하구나	寂寂有松楸
팔조의 가르침은 천 년에 드리워 있고	八教垂千古
삼인은 마침내 한 언덕 같았지만	三仁竟一丘
석상은 풀 속에 묻혀 있고	草生翁仲沒
꽃 피어 소나무만 그윽하구나	花發鬣封幽
지난 일은 물을 곳이 없고	往事無因問
외로운 성에는 저녁 안개 걷히고 있다	孤城暮靄收

② 추운 날 산 속의 절에서 잠을 자니	一宿寒山寺
한 밤중에 거친 종소리 들리네	疎鍾半夜鳴
작은 뜰에는 달빛이 가득하고	小庭多月色
고요한 방에는 강물소리 가득하다	靜室足江聲
천제의 아들은 지금 어디로 가서	帝子今何去
천손이란 이름만 남아 있고	天孫但有名
영웅들도 모두 적막하여서	英雄俱寂寞
사는 것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네	悟得是無生 <sup>15)</sup>

①은 <기자능(箕子陵)>이라는 제목의 시이고, ②는 <영명사야반서회(永明寺夜半書懷)>라는 시이다. 평양에서 김시습은 기자조선과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감회에 젖는다. ①에서 김시습은 기자의 무덤을 보고 기자조선의 문물이 비록 천 년에 드리워져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자취는 돌보는 사람도 없이 풀과 나무만 무성한 채 황량하게 버려져 있다고 하며 상심에 잠겨 있다. ②는 영명사에서 잠을 자며 느낀 감회를 적은 시이다. 영명사는 고구려 시대의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김시습은 <취유부벽정기>에서 영명사가 고구려 동명왕의 구제궁이라고(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也) 하고 있다. 그 영명사에서 잠을 자며 김시습은 고구려 시대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광을 이끌었던 동명왕과 영웅들이 가고 없어 적막 속에 잠겨 있는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고 있다. 기자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들의 삶이

15) 김시습, 『매월당집』 권9.

뒤틀리고 파괴되었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기자 조선과 고구려의 유적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고 있다는 데에서, ①과 ②의 시는 부벽정에서 읊었던 홍생과 기씨녀의 시와 너무나 닮아 있다. <취유부벽정기>가 김시습의 관서 여행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이처럼 김시습은 관서지방을 여행하며 “옛 성에 올라 보고 황폐하게 변해 버린 마을을 서성이며 궁전과 능묘가 퇴락하여 오동과 가래나무만 무성하고 벼와 기장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감회에 젖었다(登眺故城徘徊墟里 宮殿陵墓 鞠爲梧楸禾黍 寧不感乎)”<sup>16)</sup>고 슬회하고 있다. 황폐하게 변해 버린 역사의 유적을 보며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인간들의 삶이 파괴된 것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관서지방을 여행하고 난 뒤 김시습은 발길을 관동(關東)지방으로 돌린다. 이곳에서 김시습은 금강산과 오대산을 거쳐 강릉에 도달해서 경포대(鏡浦臺)와 한송정(寒松汀)을 보고, 자신의 존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떠도는 하루살이나 아득하게 넓은 바다의 좁쌀 한 톨처럼(寄蜉蝣於天地 渺滄海之一粟者也)<sup>17)</sup>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거대한 자연과 벗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세상과 우주의 커다란 질서 속에서 삶 전체를 조망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관동지방을 떠나 김시습은 다시 호남(湖南)지방으로 간다. 이곳에서 김시습은 사람들의 생활이 충실하고 물산이 풍부한 것을 보고, 백제가 천혜의 조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고(此百濟之所恃以強 而所驕以亡者也)<sup>18)</sup> 하며, 위정자들이 국가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호남지방을 떠난 김시습은 드디어 경주의 금오산으로 들어가 그곳에

16) 김시습, 당유관서록후지, 『매월당집』 권9.

17) 김시습, 당유관동록후지, 『매월당집』 권10.

18) 김시습, 당유호남록후지, 『매월당집』 권11.

서 터를 잡고 산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관서지방으로 떠난 지 10년이 흐른 뒤였다.<sup>19)</sup> 이곳에서 김시습은 병이 들어 10일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하다가 가을이 깊어질 때 겨우 일어나서 현재를 느끼고 옛 날을 생각하며 11수의 시를 짓는다.

- |  |  |
|--|--|
| ① 천도는 기계의 바퀴같아서<br>일원으로 잠시도 쉬지 않네<br>사계절이 순서대로 이어지고<br>성신도 질서 있게 둘러 있다<br>건은 강건하고 곤은 유순하여<br>큰 덕화가 수레의 축과 같아서<br>잠깐이라도 정지하게 되면<br>만물은 자라날 수 없게 되네<br>군자는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br>지성으로 공경하여 체득하네 | 天道似機輪<br>一元無暫息<br>四時迭推移<br>星辰環歷歷<br>乾健又坤順<br>大化如轉軸<br>一息若暫停<br>萬彙不能毓<br>君子法天運<br>至誠體於穆 |
| ② 하늘이 우리 태조를 내려주시니<br>하늘을 거느려 여섯 용을 타고<br>백억 년에 넉넉함을 내려주시니<br>예악이 어찌 그리 화락하였는지<br>세종께서 또 통서를 이어 받아서<br>멀리 삼황오제의 자취를 따라가셨네<br>거의 대도가 회복 되려는데<br>슬프다 하늘의 손님이 되셨네                         | 天生我太祖<br>御天乘六龍<br>垂裕百億載<br>禮樂何離離<br>世宗又繼緒<br>遠追三五蹤<br>庶幾大道復<br>吁嗟賓九重                   |
| ③ 세월은 홀연히 바뀌어 가며<br>달리는 바퀴처럼 멈추지 않아<br>지금 사람 옛 사람을 애석해 하지만<br>고금은 흐르는 물과 같아<br>뒷사람이 지금의 시대를 탄식해도   | 歲月忽代序<br>奔輪無停止<br>今人惜古人<br>古今若流水<br>後人嘆今時  |

19) 정병욱, 『김시습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49쪽.

지금 사람이 옛 사람 탄식함과 같아	亦嘆今人似
지금 사람과 옛 사람이	今人與古人
어느 때 그칠지 알 수 없구나	不知何時已
그러므로 군자들은	所以君子人
사는 것을 가벼이 죽음을 중히 여겼네	輕生重身死
읊고 나서 문득 하늘을 보니	吟罷忽仰視
북두칠성이 비스듬히 놓여 있다	斗杓橫麗施 <sup>20)</sup>

병으로 10일 넘게 누워 있다가 가을이 깊어서야 일어나 지금과 옛날을 생각하며 지었다(<病臥彌旬 至秋深乃起 感今思古 作感興詩十一首>)는 긴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이다. ①은 첫 번째의 시이고, ②는 열 번째의 시이며, ③은 마지막 열한 번째의 시이다. ①에서 김시습은 천도(天道)의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천도의 운행은 사계절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별들이 질서 있게 둘러 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굳건한 질서를 갖고 만물을 화생(化生)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도 천도의 질서를 알고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인간들의 삶이 우주적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들이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도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에서 김시습은 세종 임금의 건국 이래의 왕통을 이어 받아 삼황오제의 대도(大道)를 거의 다 이를 즈음에 세상을 뜬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0년 동안 전국을 유랑하며 기자조선에서 고구려로 그리고 다시 고구려로 이어졌던 김시습의 관심이 조선으로 연결되며 세종 임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이 뒤틀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김시습이 이제는 세종 임금의 뜻이 꺾여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20) 김시습, 『매월당집』 권12.

세종 임금의 뜻이 꺾인 것을 안타까워하던 김시습은 ③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이유를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항상 지금의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은 늘 과거의 역사를 보며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역사가 언제나 지금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지금 김시습이 세종 임금의 일로 안타까워하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 된다. 인간들의 삶은 언제나 인간들의 뜻대로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안타까운 질문 앞에서 김시습은 북두칠성이 비스듬히 둘러있는 하늘을 보고 있다.

③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김시습의 행위는 ①에서의 깨달음과 연결된다. 인간들의 삶이 천도의 운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들의 문제를 인간들의 세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조의 정변으로 인간들의 삶이 뒤틀리고 파괴되는 것에 깊이 절망하고 10년 동안 역사의 유적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던 김시습이 이제 경주의 금오산에서 천도의 운행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천도의 운행을 통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시습의 깨달음이 기씨녀를 좇아 초현실의 세계에서 삶의 이치를 찾아보려 했던 홍생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취유부벽정기>는 세조의 정변으로 자신의 삶이 뒤틀리고 파괴되는 것을 겪었던 김시습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역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려 한 작품이었다. 그 결과 역사에서는 인간들의 고통이 반복해서 이어져 왔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삶의 이치는 천도의 운행, 즉 초현실의 세계를 통해서 찾아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취유부벽정기>는 사회의 어지러운 힘에 의해 비틀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홍생이 역사를 통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해 보려 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인간들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초현실의 세계에서 가더라도 삶에 대한 이치를 듣고 싶어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조의 정변을 겪으며 김시습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작품화 한 것이기도 했다.

사회 어지러운 힘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작품 전개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취유부벽정기>는 <이생규장전>에서의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었다. 남녀의 애정을 통해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이생규장전>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유부벽정기>는 미완성의 작품이다. 홍생이 기씨녀를 따라 초현실세계로 갔다는 것까지만 다루고 있을 뿐 아직 초현실세계에서의 일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현실의 세계에서 삶의 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취유부벽정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남염부주지(南炎浮州志)>에서이다. <취유부벽정기>가 <이생규장전>과 <남염부주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이 개별적인 작품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으며,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창작하려는 의도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13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1, 40~41쪽.
- 정병욱, 「김시습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49쪽.
-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현상과 인식』3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9, 124~130쪽.
- 윤호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구조와 작가의식」, 『중국어문학』18권,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191~213쪽.
-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2쪽.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117쪽.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14권, 한국고소설학회, 2002, 5~30쪽.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삼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43쪽.
-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191~221쪽.
-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쪽.
- 김창현, 「『금오신화』, 취유부벽정기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낭만성」, 『인문과학연구논총』38호,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15~36쪽.

<Abstract>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o go  
forward surreal world on  
〈Qui-Yu-Bu-Byok-Jeong-Ki(醉遊浮碧亭記)〉

Ahn, Chang-soo

<Qui-Yu-Bu-Byok-Jeong-Ki(醉遊浮碧亭記)> is the work to show that Hong-sang(洪生), the main character who had to live a corrupted life by the social violenc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awareness of life through history. However, Hong-sang(洪生) realized that people's suffering has only been repeated in history, and hoped to go to the surreal world and to listen the logic of life.

This is to show the series of process that Kim Si Seup(金時習), the author of the work, suffered serious pains through the coup of SeJo(世祖) and tried to find the answer to the problem of life through history.

Key Words :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logic of life, the surreal world, the problem awareness of life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